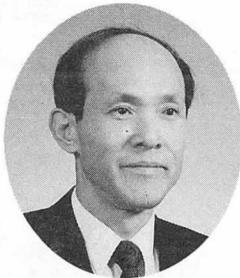


# 약보합세 진행



정 호 품  
(본회 지도부장)

## 1. 머리말

UR협상의 진행과정을 지켜 보면서 농민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터뜨렸고 전국 곳곳에서 시위는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쌀개방에 가리워져 마스크들도 돼지, 닭에 대하여는 잠잠했었지만 미국이 노리는 것은 쌀을 공격함으로써 여타 농축산물은 어부지리격으로 먹혀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협상은 종료되었고 대안마련에 부심하는 바쁜 연말이다. 제반경기가 얼어붙고 날씨가 쌀쌀하니 의지할 길 없는 농심을 무엇으로 달래 줄 것인지?

## 2. UR협상 타결내용

쌀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통하여 너무나 많이 언급되었으니 축산물에 대하여만 덧붙이고자 한다. 냉동돼지고기의 완전개방은 '97년 7월 1일부터이며 이때의 관세적용은 33% 범위내에서 적용토록 되어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수입제한을 위하여 최대관세적용을 하려 해도 33%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95년부터 수입의무 물량이 3%, 4%, 5%로 점증될 것인 바 '95년의 3%라는 것은 '92년도 국내수요물량(정육 585천톤)의 지육과의 비율이 되는 것이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정육 585,000톤×1.25=지육 731,000톤
- 지육 731,000톤×3/100=21,930톤

냉장돈육은 이미 '94년부터 개방하기로 되어 있으며 적정온도 유지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유통업계 인사들의 말이다. 그러나 '95년부터 개방되는 냉동육은 문제가 다르다. '92년도 축협중앙회를 통하여 수입된 실적을 보면 C&F가격으로 원화계산하여 <표1>과 같으며 이는 국내사정상 급거 입하된 비용이므로 비싸게 소요된 수치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유통업체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택하여 라

인을 확보한다면 축협중앙회에서 수입한 실적보다 싼 값으로 수입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1> 미국산 축산물 수입가격

(C&F가격, 정육kg당 가격)

구분	수입가격	비고	
돈육	앞다리	1,262원	국내 유통은 가공업체로 흡수되었고 마진은 50% 이상이었음.
	뒷다리	1,784	
	삼겹살	1,724	
	갈비	2,572	
	평균	1,728	
	관세	435	25% 적용
	제비용	47	2~3%
합계	2,210		
쇠고기	중등육	4,000	관세20% 포함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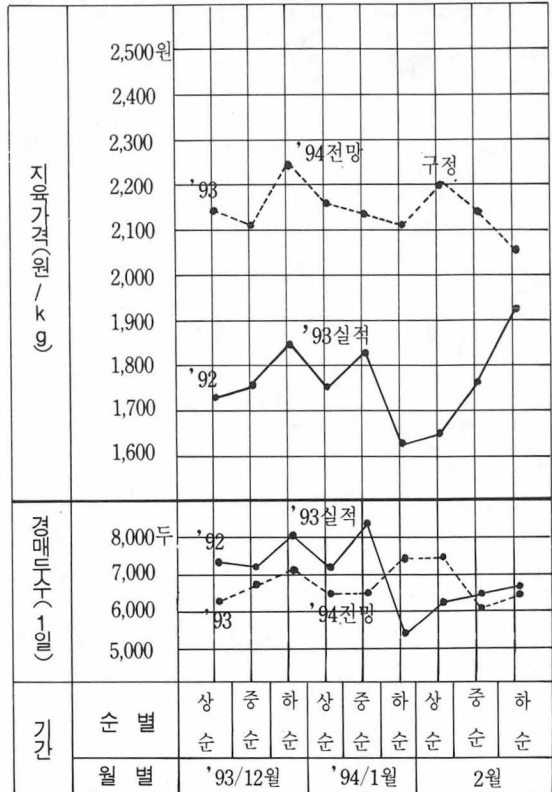
본회에서 검토한 바(본지자료 참조) 돼지 자체만으로는 경쟁에 낙망적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쇠고기에 달려 있다. 광대한 초원에서 방목시켜서 생산하는 생산비와 농후사료와 조사료 모두를 비싼 값에 구입하여 공급하는 한국형 사양방식과는 도저히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값싼 쇠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때 한국인들은 아직도 같은 값이면 쇠고기를 찾는 것으로 보아지니 대체현상으로 인한 국내 돈육의 소비가 감소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 3. 연초 경기를 전망한다.

연말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1주간 앞당겨 이루어졌고 중순에는 신정과 연말을 앞에 놓고서 오히려 약세로 진행되고 있으나 하순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상승될 것이다. 하지만 구정대목이 2월에 있으니 1월의 양돈경기는 오히려 약세로 진행되다가 1월 하순이나 돼야 반응세로 구정까지 연이어질 것이다. 구정을 지나고 나면 수요가 격감되므로 도리없이 하향곡면으로 돌입할 것이며 냉장돈육도 시범적으로 시중에 선보이지 않을까도 예상된다(표2 참조).

<표2> 경매두수 및 가격 동향

(서울 3개 도매시장 기준)



### 4. 맺음말

요즈음의 시세전망은 통례를 깨어 버리는 경향이 많음을 본다. 예를 들면 '93년 5월의 하향 경기라든가 11월 하순의 상승경기는 예상 밖이었다. 그러니 앞으로 구정전에도 오히려 하향되지 않을까도 염려해볼게 된다. 당면한 시세의 오르내림보다는 장차 우리의 양돈산업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자포자기 해버리면 그는 죽게 되고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하루 8시간 일한 것을 10시간 일한다면 그로 인하여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에게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